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군)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그의 감사의 깊이
달려 있다.



[제 1독서] 2열왕 5,14-17

[화답송] 시편 98(97), 1,2-3-4, 3-4(◎ 2)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찬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제 2독서] 2티모 2,8-13

[복음 환호송] 1테살 5, 18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복음] 루카 17, 11-19

성가	8시 미사	입당 24	봉헌 212 511	성체 175 165	파견 401
	11시 미사	입당 24	봉헌 212 511	성체 175 165	파견 401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28주일(10월 13일)		연중 제 29주일(10월 20일)		연중 제 30주일(10월 27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로(명국)	허세실리아(홍숙)	임루카(승원)	황테레사(혜정)	정스텔라(애리)	이마리크레센시아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심미카엘(태규)	최분도(환준)	정요한(석준)	김안드레아(찬곤)	이레이몬드(창용)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심헬레나(승화)	최분다(수영)	손리디아(정옥)	김글라라(순희)	이베로니카(경란)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독서와 복음의 핵심주제는 바로 감사입니다. 특히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치유 이적에 대하여 돌아와서 감사드린 사마리아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아홉 명을 극적으로 대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마침 나병 환자 열 사람이 자비를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사제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병이 낫고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큰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름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반문하시며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믿음의 중요성과 함께 감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제1독서에는 이방인이었던 시리아의 장군인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둥병을 고친 내용입니다. 그는 엘리사의 요구대로 단지 요르단 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음으로 그 끔찍한 나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그러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다시 예언자 엘리사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야훼 하느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결코 그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물을 거절하는 예언자 엘리사 앞에서 나아만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야훼 하느님 말고는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 흙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병이 나은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지고 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나아만은 단지 나병을 고치기 위해 왔었지만 나병뿐만 아니라 소중한 믿음을 선물로 얻어가는 행운을 잡습니다. 육체의 병보

다 더욱 더 끔찍한 것은 바로 불신의 병입니다. 나아만은 하느님을 알게 되어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마시는 공기, 아름다운 자연,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 건강과 재능,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 바로 자기 자신마저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순간의 요행을 바라지 말고 좋은 일이나 궂은일이나 모든 것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주님 뜻이라면 어찌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루하루가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1테살5, 18)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당연지사(當然之事) 라고요?

‘당연지사’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판단할 때에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하거나 되리라고 여겨지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연의 이치에 해당하는 일이나, 부모나 자식 간에, 혹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해당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늘 당연하다고 해서 항상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잊은 것은 없을까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과 나라가 당연히 다른 모든 민족이나 국가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당연히 자신들을 돌보아주시고 구해주시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주시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늘 당연한 일로 여길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마태오 복음서의 견해를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당연히 우선시하는 예수님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견하실 때도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마태 10,5-6)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여자와 대화하실 때도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마태 15,26)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루카 복음서의 견해를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선시되는 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의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에 “엘리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아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루카 4,25-26)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루카4,27)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일들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여길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오늘 제1독서에서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엘리사 예언자 덕분에 나병이 치유된 후에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2열왕

5,15)라며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복음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나?” (루카 17,18)라고 언급하시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듯이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감사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당신은 저와 함께 계시려고
잔칫상으로 저를 부르십니다.

이 깊은 감사과 한없는 찬미를
어떻게 드리면 좋습니까?

글_ 「준수성범」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몸을 돌려 똑바로 바라보는 주님의 눈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뜨거운 물 속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구 시원해. 너도 들어와라.” 속은 아들은 냉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튀어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우와. 세상에 믿을 X 하나 없구나.”

미국의 CIA는 거짓말을 백색, 회색 그리고 흑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흑색 거짓말과 완전한 거짓은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선의라는 이름의 백색 거짓말. 그 경계가 애매한 회색 거짓말이 있는데, 아들을 속인 아버지의 거짓말은 백색 거짓말 중의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으므로 죄의식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들에게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그 빛깔이야 어떻든 모든 거짓말은 악의 독소임을 주님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악마)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요한 8,44) 이러한 치명적인 거짓말을 베드로가 세 번이나 저지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처음 보셨을 때부터 바위라고 불릴 만큼 신임을 받은 으뜸 제자였습니다. 동생 안드레아가 하룻밤 먼저 예수를 만나 함께 지낸 후 형을 데려갑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앞으로 너를 게파(베드로)라 부르겠다.’ (요한 1,42)라고 예언하십니다.

베드로를 눈여겨본 ‘첫 순간’에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며,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마태 16,18-19)고 미래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태 26,35)라고 장담하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신 후 대사제 앞에 끌려가 조롱당하는 모습을 바깥뜰에서 불을 쬐며 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여종 하나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오.’ 라고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이 돌연한 상황을 베드로는 두렵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황한 베드로가 일어나 대문개로 나가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오.’ (마태 26,71 참조)라고 거듭 말합니다.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모릅니다.’ 라고 두 번

째 거짓말을 합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틀림없이 예수와 한패’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마르 14,74) 잡아챌니다. 이것이 악마가 노리는 거짓말의 비수입니다.

실제로 세 번째 거짓말을 할 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스승이 저처럼 뺨맞고 조롱을 받는 그런 하찮은 존재임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간 믿었던 자신에 대해 화가 났으며 그래서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할 만큼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화를 내는 법이다.’ 라고 말했듯 베드로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 때 베드로는 ‘몸을 돌려 똑바로 바라보는 주님의 눈’ (루카 22,61 참조)과 마주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슬피 읊니다.

‘아아, 주님은 처음 본 순간부터 베드로를 눈여겨보셨지만’ 베드로가 주님의 눈을 본 것은 3년 후인 그때가 처음입니다.

주님, 닭이 울고 있습니다. 하오나 아직 저는 주님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어 아직도 거짓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베드로처럼 밖으로 나가 슬피 울어 ‘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사도 9,18) ‘몸의 등불인 성한 눈’ (마태 6,22)으로 삼라만상을 온전히 볼수 있게 하소서.

- 성경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

고 최인호 베드로/작가

머무름

저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여 사회의 결속 자체를 붕괴시키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지 마십시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90항

가톨릭전례

세례성사

1) 세례성사의 필요성

“반드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착하게만 살면 되지 않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세례성사가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와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례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세례는 복음을 듣고 이 성사를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필수적이다. 교회는 영원한 행복에 들기 위한 확실한 보증으로 세례 이외의 다른 방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257항).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례성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린이들에게 세례성사를 주는 것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린이들도 원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므로,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느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의 영역으로 옮겨가기 위해 세례로 새로 나아한다. ... 그러므로 출생 후 가까운 시일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면, 교회와 부모는 그 아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무한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250항).

세례성사가 이처럼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성사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할 것입니다.

2) 세례성사를 받지 않은 이들의 구원

그러나 세례성사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세례성사를 받으면 천당, 안 받으면 지옥”이라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세례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보다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구원을 세례성사에 매어 놓으셨지만, 하느님 자신이 성사에 매어 있는 것은 아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257항).

혈세와 화세

가끔 있는 일이지만, 예비신자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가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교회는 믿습니다(화세). 또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지

만, 박해 시대에는 세례성사를 받고자 하는 원의가 있어도 여건이 안되어 성사를 받지 못한 채 순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혈세).

교회는 예로부터, 세례는 받지 않았으나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굳은 신념을 간직해 왔다. 이러한 혈세는 화세와 마찬가지로 성사가 아니면서도 세례의 효과를 낳는다(가톨릭교회교리서 #1258항).

복음과 교회를 모르지만 진리를 찾고 선하게 산 사람들 “그리스도교가 한국에 전래되기 전에 살다가 죽은 우리의 조상들은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의 구원 가능성을 교회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른다고 해도, 진리를 찾고 자신이 아는 대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의 필요성을 알았다면 분명히 세례를 받고자 했을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260항).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들

낙태된 태아들이나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유아들은 자기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받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이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공정하심과 자비하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희망”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들의 경우, 그들을 위한 장례 예식에서 하듯이 교회는 그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길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라시는” (1티모 #2:4)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261항).

3) 세례성사는 취소될 수 없다

세례성사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세례성사는 우리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으면 우리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하느님의 인호가 새겨진다고 합니다. 한 번 받은 세례는 다시 받을 수 없다(가톨릭교회교리서 #1272항).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선교 사목국장

- 성 쟁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8	220	40	348
헌 금	\$643	\$1,560.25	\$50	\$2,253.25

< 교무금 > \$4,105

최은용(7-9) 석흥기(6-9) 배젼마(9-10) 전숙희(10)
 김관숙(9-10) 김순이(10) 고연석(10) 남금지(10)
 채용분(10) 김영순(10) 조승훈(1-6) 허순구(9-10)
 박종영(10-12) 정애리(10) 김원덕(8-10) 임윤택(10)
 조덕행(9-10) 송선주(9-10) 김정복(10) 전문자(10)
 박일신(10) 이명란(10) 변귀태(10) 이상우(7-12)
 심재구(10) 허동원(10) 조우송(10) 황정희(10)
 김범식(7-12) 김옥녀(10) 육승주(10)

< 성소후원금 > \$130

전숙희(10) 김순이(10) 채용분(10) 조덕행(9-12)
 임윤택(10) 김정복(10) 박일신(10) 이명란(10)

< Bishop's Appeal > \$170

홍흥기(8-12) 조덕행(9-12) 조진행(3-8)

< 감사헌금 > -

< 2차 헌금 > \$581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9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345.28

날짜	지 향	봉 헌 자
10월 13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유주호	가족
	연 박마리아(회원)	가족
	생 서데레사	박데레사
10월 15일 화	연 최베드로(취종)	가족
	생 김에드워드(지성)생일	김케넷(관용)
10월 16일 수	연 부모님 기일	이마태오(영기)
	연 아버님	원프란치스코
	연 부모님	원젼마

~~~~ 오늘 간식은 장찬호 안드레아/베로니카 맥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제 사 양 -

◆ 11월 위령성월 묘지미사 안내

일시 : 11월 2일(토) 오후 3시

장소 : Gate of Heaven

\* 아침미사 있습니다.(성모신심미사)

◆ 2차 헌금 안내

10월 20일 : World Mission Sunday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구역장회의 : 10월 13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독서클럽 : 10월 13일(오늘) 교중미사 후 103호실
- \* 평협회의 : 10월 20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뜨개질사랑회 : 10월 20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전신자 대상 서예교실 개설

강사 : 최용일 시몬

문의 : 마리아회 510-703-7350

◆ 이야기 성서반 모집(첫시간 : 10월 14일)

일시 :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 저녁 7시 반 - 9시 반

지도 : 조마오로 수녀님

장소 및 준비물 : 대건회관, 신약성경책과 공책

접수 및 문의 : 친교실, 김은수 로사 510-289-0903

◆ 2014년 본당 달력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문의 : 사무실 510-553-9434

◆ 10월 Hair Cut 봉사는 첫째, 셋째 주입니다.

◆ 오늘은 9구역에서 미역국밥을 \$3에 판매합니다.

10월 구역모임 **클로세서 3-4장**

|      |               |            |
|------|---------------|------------|
| 2 구역 | 10월 19일(토)6시반 | 염성섭 시몬 닥   |
| 4 구역 | 10월 26일(토)6시반 | 최환준 베네딕토 닥 |
| 6 구역 | 10월 18일(금) 6시 | 정병구 베드로 닥  |
| 9 구역 | 10월 26일(토) 6시 | 김영준 사비노 닥  |

◆ 신앙의 해 신앙상 후보자 추천

\* 수상 내역 : 미사참례와 신심단체 활동에 적극적이며, 기도 및 성사생활에 열심하여 신앙적 모범을 보인 것에 대한 포상

\* 후보 추천 : 연말에 올해의 교우상(전교상, 봉사상, 사랑상) 시상이 따로 있으니, 위의 수상 내역과 관련하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일 : 11월 24일 신앙의 해 폐막미사 중

\* 접수 : 후보 안에 있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11월 10일 까지 사무실에 제출

\* 문의사항: 영성부장 (707-696-7743)

◆ 메디칼, 오바마 케어 설명회

일시 : 11월 3일 8시 미사 후, 교중미사 후 성당

◆ 교우 양봉남 베드로 형제님께서 10월 9일 선종하셨습니다.

문상예식 : 10월 15일(화) 저녁미사 후

장례미사 : 10월 16일(수) 11시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오전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